산업보건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통과 믿음으로 결실을 이룰 수 있습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10일의 긴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 최근 한국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번 추석연휴 기간 동안 열흘을 다 쉬는 응답자는 61%이며, 평균 8일을 휴무한다고 한다. 못 쉬는 이유는 대체로 교대제 근무(62%)나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상의 이유(14.5%)라 한다. 업종별로는 운수노동자의 75.4%, 의료노동자의 58.6%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운수노동자들은 최장 10일간의 연휴 중 평균 4.5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조사

대한산업보건협회
사업총괄이사
정영숙

되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과로사, 버스기사의 졸음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등을 생각할 때 근거가 뒷받침되는 설문이라고 생각된다.

오랜 세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로하는 노동자의 삶'을 지향하며 일 해온 사람으로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특례조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고용 형태의 열악함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감출 길 없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심의위원, 안전보건공단 비상임 이사 등 그 간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의 경험과 인연으로 지난 8월부터 54년 산업보건의 역사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사업총괄이사직을 맡게 되었다. 입장의 변화가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제는 산업보건이라는 단어에 귀가 쫑긋 세워진다.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기념식에 전달되었던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에 이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사망재해를 줄이고자 하며,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적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노동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 종사자들에게도 희망적인 메시지라 하겠다.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유해 ·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강화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고, 인가대상을 확대하여 적격 수급인 선정을 의무화 하는 등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범위를 확대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최대한 방지할 대책 확립

2. 유해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 보호

특수형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사업장 내 출입자 등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의 대상을 확대하고 물리적 · 화학적 유해인자 뿐 아니라 사회 · 심리적 유해인자도 관리

3.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

작업 중지의 해제 시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자 제재의 실효성 강화

4. 사업장 보건관리시스템 내실화

보건관리자의 선임업종과 규모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대규모 사업장은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 하도록 유도하며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개선을 추진, 사업장 감독 방식의 전환 등

5. 산업보건전문인력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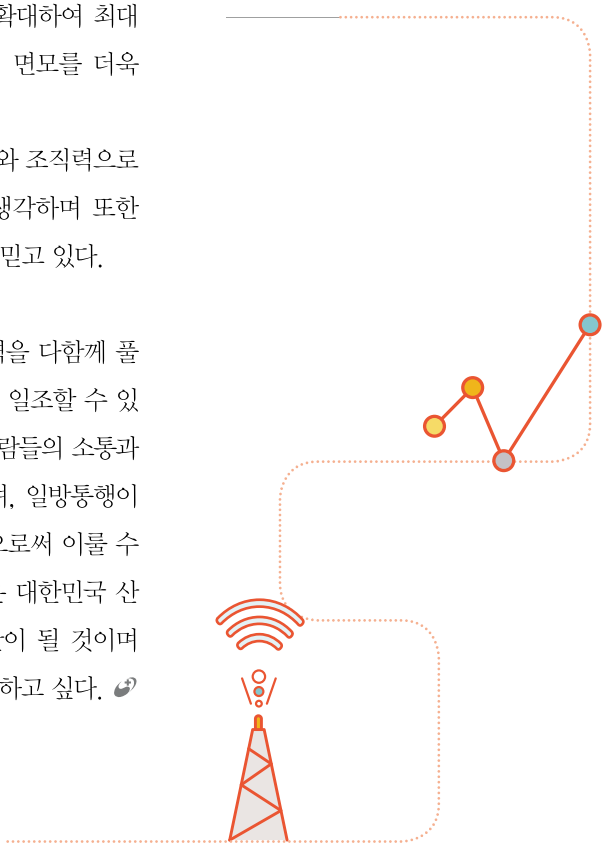
근로감독관,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와 확충 필요

정부의 새로운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을 대하면서 산업보건전문기관도 새로운 대응과 준비로 거듭 변화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고 우리 협회 또한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근로자 건강보호와 산업보건의 가치를 지켜나가려면 우리가 하는 산업보건사업이 안정화되고 고품질이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운영 및 지원업무체계 구축과 구성원의 역량강화, 그리고 고객만족을 위한 사업서비스 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보건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진단과 최대 효율을 위한 솔루션을 이끌어내야 하고, 한편으로는 산업보건시장의 확대와 신사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가 이루어져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하겠다. 협회 창립의 근원으로서 우리나라 산업보건 인재양성에 기여해 온 교육사업도 이제 그 역할과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최대 산업보건전문기관의 장점을 살린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해야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협회가 가진 산업보건에 대한 가치와 조직력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우리 협회를 지속 가능하게 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가 가진 산업보건에 대한 희망과 경험, 영향력을 다함께 풀어내 협회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보건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이 모든 일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통과 믿음으로 그 결실을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일방통행이 아닌 노사, 우리를 둘러 싼 산업보건 환경과 소통함으로써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소통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내는 일들은 대한민국 산업보건의 모범이 되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며 산업보건 정책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함께 희망하고 싶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통과 믿음으로
그 결실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 싼
산업보건 환경과
소통함으로써
이룰 수 있을 것이다.